

스위스 재보험 시그마 보고서 - 2011 년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3 천 5 백억 달러, 보험 손실은 1 천 8 십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

Contact: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Lucia Bevere, Zurich
Telephone +41 43 285 9297

Thomas Holzheu,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190

Clarence Wong, Hong Kong
Telephone +852 2582 5644

Swiss Re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 2011 년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사상 최고치인 3 천 5 백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의 보험 부보율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업계 최악의 손실 모면

2011 년 12 월 15 일, 취리히 -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보고서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11 년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로 인한 전세계 보험업계의 총 손실은 1 천 8 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0 년 의 480 억 달러 대비 두배 이상의 규모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액은 2010 년 430 억달러 대비 2011 년에는 1 천 3 십억달러로 증가했다.

사상 최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해

2011 년 재해로 인해 발생한 총 경제적 손실(보험 부보 및 비부보 부분 포함)은 2010 년 2 천 2 백 6 십억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3 천 5 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손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 11 월까지 재해로 인해 30,000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역시 상당수가 일본에서 발생한 것이다.

스위스재보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Kurt Karl은 "2011 년은 매우 비극적이며 높은 비용을 초래한 지진이 발생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일본 등 지진 위험이 높은 일부 선진 산업국에서조차도 지진의 보험 부보율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더하여, 기업, 구호기관 또는 정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은 막대한 재정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보험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었던 해

시그마 보고서에 따르면 2011 년은 약 1 천 8 십억 달러의 재해로 인한 보험 손실을 기록함으로써 1 천 2 백 3 십억 달러를 기록한 2005 년에 이어 보험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손실을 기록한 해가 되었다. 1 천억 달러가 넘는 보험손실을 초래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윌마, 리타 등이 발생한 2005 년에 비해 올 한 해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손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만약 일본이 뉴질랜드 등 지진 위험이 높은 다른 국가들과 같은 수준의 보험 부보율을 유지했다면, 보험업계의 전반적인 손실은 훨씬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 면에서 2011 년은 보험업계 역사상 두 번째로 손실이 큰 해가 되었다. 태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홍수 피해 또는 유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 폭풍으로 인해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1 천 2 백 3 십억 달러를 기록한 2005 년에 한 층 근접한 숫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과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이외에도 태국과 호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100 억달러가 넘는 보험금이 지급 되었다. 미국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대형 토네이도로 인해 140 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400 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허리케인 아이린으로 인한 재산 손실로 보험업계는 50 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표 1: 2011 년 대형 재해 보험 손실

	보험 손실(1) (십억 미달러)	발생일자 (시작일)	재해 유형	국가
1	35	2011.03.11	지진(진도 9.0)으로 인한 쓰나미	일본
2	12	2011.02.22	지진(진도 6.3)	뉴질랜드
3	8~11	2011.07.27	홍수	태국
4	7.3	2011.04.22	강한 폭풍, 토네이도	미국(앨라배마 등)
5	6.7	2011.05.20	강한 폭풍, 토네이도	미국(미주리 등)
6	4.9	2011.08.22	허리케인 아이린	미국 등
7	2.3	2011.01.09	홍수	호주
8	2	2011.04.03	폭풍	미국
9	1.5	2011.04.08	폭풍	미국
10	1.4	2011.04.14	폭풍	미국

(1) 재산 및 기업휴지 손실(책임보험 및 생명보험 손실 제외)

출처: PCS(Property Claims Services), 미국의 자연재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해

2011 년은 470 억 달러가 넘는 역사상 최대의 지진 보험금을 지급한 해가 되었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은 진도 면에서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보험업계에 약 350 억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보험 손실은 전체 손실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최소 2 천 1 백억달러로 추정되는 총 경제 손실은 원자력 발전 설비에 대한 손상과 전 세계 공급 체인 마비로 인한 손실액이 포함되는 경우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지난 2 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지진은 150 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주거 시설을 중심으로 한 높은 지진보험 가입율로 인해 보험업계가 대부분의 손실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용어 및 선정 기준	
자연재해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사고
인적재해	인간의 활동과 연관된 사고
재해 보험 손실	재해로 인한 손실액 중 재물보험이 담보하는 손해
총 경제적 손실	보험이 담보하지 않는 재해 손실을 포함한 총 손실
선정 최저 기준	
총 손실	8,920 만 달러
또는 재물보험 손실	해운: 1,790 만 달러 항공: 3,590 만 달러 기타: 4,460 만 달러
또는 인명피해	사망자 및 실종자: 20 부상자: 50 이재민: 2,000

스위스리 (Swiss Re)

스위스리 그룹은 재보험, 보험, 및 기타 보험 기반 위험 이전 상품을 제공하는 선도적 기업이다. 고객과 직접 또는 브로커사를 통해 전 세계에 기반을 둔 보험사, 중대형 기업, 공공 부문과 거래를 하고 있다. 표준 상품부터 맞춤형 상품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 분야에 걸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본력, 전문성, 혁신력을 기반으로 기업과 사회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1863 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스위스리는 전세계 56 개에 이르는 사무소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A-'를, 무디스(Moody's)로부터 부터 'A1'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부터 A 등급을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리 그룹 지주회사와 스위스리는 SIX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SREN). 더 자세한 사항은 www.swissre.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그마 보고서 "2011 년의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는 2012 년 봄에 출간될 예정이다. 전자 문서 및 인쇄 문서 버전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인쇄 문서 버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전 주문할 수 있다.

e-mail: sigma@swissre.com
 Zurich: phone + 41 43 285 38 89 fax +41 43 285 0075
 New York: phone +1 212 317 5400 fax +1 212 317 5455
 Hong Kong: phone +852 25 82 5703 fax +852 25 11 6603

시그마 보고서 관련 보도자료 수취 정보:

본 시그마 보고서 관련 보도자료의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버전은 스위스재보험 웹사이트 www.swissre.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보도자료는 이메일로도 배포된다. 관련 자료는 sigma@swissre.com 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